

■ 민선 5기 단제장에 듣는다

김충석 여수시장

“박람회 SOC 확충 최우선”

김충석 여수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정·비리 없는 청렴 도시 건설’을 선포하면서 “저부터 청렴하고 깨끗한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의 첫 인사는 향후 4년의 시정의 향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시장의 시정 방향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4년의 회복’과 ‘박람회 SOC 개척 준비’로 압축된다.

김시장은 우선 자신이 민선 3기 시절 추진하던 4기 시절 중단된 사업들을 다시 시작하는 형태로 시정의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시장 규모도 민선 3기 김시장이 재임시



발하는 등 4기 시절 중단된 각종 사업들이 모두 재추진된다.

시장재임시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았던 것을 부활하고 시립박물관 건립 등도 재추진될 예정이다.

박람회 개최로 사라지는 여수신항의 대체항 건설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된다. 김시장은 “여수신항 북방과제 일대에 신북항 조성을 추진하고, 신북항 완공이전까지 무역항 기능을 오전동 연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미 바닥을 드러낸 여수시 예산으로 이 같은 사업을 재임 기간 동안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따라서 김시장은 당분간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노력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관련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야간 경관사업을 비롯해 ▲웅천생태터널 ▲웅천 인공해수욕장 ▲이순신 광장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김 시장은 밝혔다.

다만 선거 당시 해체를 약속했던 여수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법인이라는 것이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쉽지 않다”며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혀 도시공사 해체는 기존 입장에서 받을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부정·비리없는 도시 건설” 청렴 시정 선포

법원·검찰청 유치·신항 대체항 건설 추진

잘 사용한 ‘세계로 웅비하는 여수’라는 슬로건이 부활된다. 이는 민선 4기에 중단된 엑스포 관련 각종 SOC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3기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박람회장 연계 도로망 구축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사업 ▲여수공항 확장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와 국회, 박람회

국회 특위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국제자매도시간의 느슨했던 협력관계를 지금부터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청결·질서·친절·봉사의 EXPO 4대 시민운동을 뿌리 내리도록 해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들을 차질 없이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검찰청 지정 유치와 여수신항 대체항 건설·소형조선소 묘도 준설도 투기장으로 이전·산재돼 있는 섬들을 특색에 맞게 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복장유물

국가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및 복장유물’ 등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복장 유물 안에 있었던 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청나라에 불모로 잡혀갔다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독살된 소현세자의 아들인 경안군 내외가 오래 살기를 기원해 만들어진 것으로, 17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조각승인 혜희(慧熙)와 금문(金文)이 조각한 것이다.

조성 배경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크고 불상 자체의 완성도도 높은 데다 옷가지들인 복장 유물은 당시의 직물·염색·민속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됐다.

또 함께 나온 불경들이 ‘복장전적’(腹藏典籍)도 팔만대장경의 15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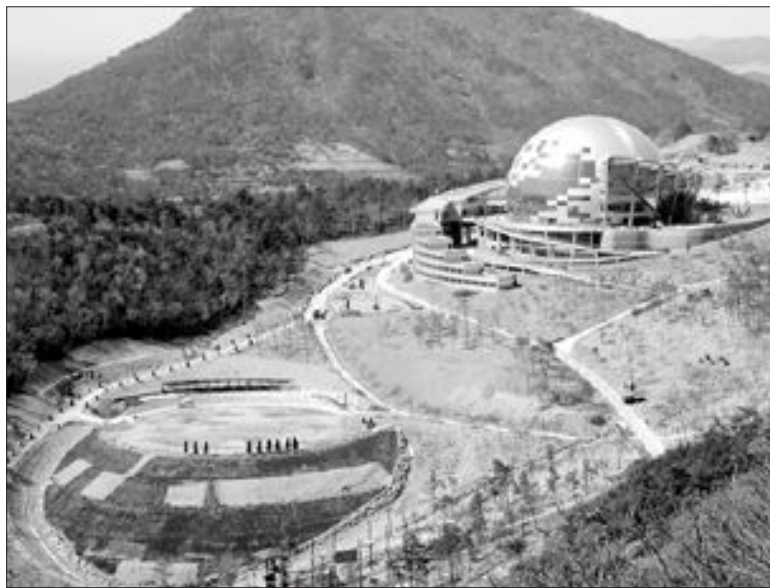
인본을 포함해 희귀하거나 새로운 자료들이 많아 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고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보에 30일 이상 지정예고 공고한 뒤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 9일 개관

나로 우주센터 인근 27만여㎡ 498억 투입 조성 체험 활동관·유스호스텔·챌린지 시설 들어서



국내 유일의 우주체험 수련시설인 ‘국립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오는 9일 문을 연다.

청소년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국립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오는 9일 문을 연다.

고흥군은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건립한 체험센터가 7·8일 이틀간 시범운영을 거쳐 9일 정식 개관한다고 1일 밝혔다.

나로우주센터 인근 동일면 덕흥리 일대 27만1000여㎡에 498억원이 투입된 세워진 체험센터는 ▲체험활동관 ▲유스호스텔(생활관) ▲챌린지 시설 등이 마련됐다.

전체면적 1만여㎡에 달하는 체험활동관에는 우주 생활공간을 재현한 우주생활관을 비롯해 ▲우주비행사 훈련체험 ▲우주 영상시설 ▲무중력 체험 ▲우주인과의 대화 등 우주에 대한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섰다.

체험관 밖에는 로켓발사장·조각달 전망대·타임캡슐광장·천체관측실 등 10여개 체험코스를 갖췄다. 동시에 2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6

층 규모의 생활관과 산책로·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또 우주에 대한 관심과 기초지식 습득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참여대상과 기간 등을 차별화해 1박2일 코스의 우주여행자 과정(4박5일) 등 총 4개로 구성했다.

고흥군은 또 청정해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양생태 체험 활동과 나로도에 서식하는 각종 식물군락지를 관찰할 수 있는 식물생태 체험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체험센터 개원을 계기로 앞으로 완공될 우주과학관 내 동영상관과 우주천문과학관·발사전망대 등과 함께 국내 유일의 테마형 우주체험관광이 가능하다”며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 필수코스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중물류기업 2곳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MOU

중국 산동성 엔타이(煙臺)지역의 물류기업이 광양항 배후 물류부지에 입주할 전망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 5월 중국 텐진·칭다오·홍콩 등에서 활발한 ‘광양항 포트세일즈’를 펼쳤다.

이에 따라 엔타이 지역의 물류 기업으로부터 포트세일즈 요청이 들어와 컨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중국 엔타이에서 ‘광양항 포트세일즈’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엔타이시 부시장과 항만집단 사장 등 엔타이 정



광양만권 인적자원센터 3기 교육생 수료식

조선·철강 인력양성 요람 자리매김

광양만권 HRD(인적자원개발)센터가 광양만권 조선·철강 산업 인력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양만권 HRD센터(이사장 김재우)는 지난달 30일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기 교육생 수료식을 가졌다. <사진>

지난해 6월 문을 연 HRD센터는 1년간 2기에 걸쳐 120명의 훈련생을 배출, 103명이 광양지역 산업체에 취업했다. 이 밖에도 재직자 향상훈련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융접분야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으로 활용돼 광양만권의 실기시험 수요를 대부분 충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HRD센터는 이달 중순 실습동이 준공되면 ▲맞춤형 융접기능인력 120명 ▲재직근로자과정 180명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700명 등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HRD센터는 제4기 훈련생을 모집,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충수기자

구례 ‘송만갑판소리 대회’ 대통령상 시상

‘동편제 판소리’ 본고장 구례에서 열리는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 시상준례가 국무총리실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으로 격상됐다.

구례군은 국창(國唱) 송만갑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 중흥과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국악계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전국대회의 장으로도 발전시키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구례 동편소리축제’에 송만갑선생 추모제와 판소리 고수대회·동편제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성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합곡)

▶ 통신훈 - 나주 I.C. - 국가산업단지 (4차산업특별개발 사업)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무동점 41-41122222 ▶

☎ 011-825-3900 ☎ 025-391-4000 (상무지구 5.18문화사거리)

금담 공인중개사

☎ 011-825-3900 ☎ 025-391-4000

▶ 상무동점 41-41122222 ▶

☎ 011-825-3900 ☎ 025-391-4000 (상무지구 5.18문화사거리)

광천동 e-편한세상

신학순 특별분양(합판) 프리차임 적용)

▶ 112동 1000호

▶ 112동 1102호

▶ 112동 1201호

▶ 112동 1202호

▶ 112동 1302호

▶ 112동 1402호

▶ 113동 1004호

▶ 113동 1204호

▶ 113동 1404호

▶ 114동 1101호

▶ 114동 1201호

▶ 114동 1401호

▶ 117동 402호

효성공인중개사

☎ 11-422-4227

☎ 011-825-3900

공공매매

▶ 대지 4,928㎡ (1,300평)

▶ 건물 2,176㎡ (658평)

▶ 용이시설 91.1㎡ (출고 9㎡)

▶ 매매가 3억 5천만

금산공인중개사

☎ 011-825-3900

☎ 025-391-4000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이차역) 매매

▶ 대지 3200㎡ (1150평)

▶ 건물 7983㎡

▶ 용적률 240%

▶ 매매가 3000만

▶ 매매기간 13개월

▶ 전차노선, 문화학교, 기타특조지역 적용

부동산 담보 대출

- 무이자, 무보증 대출 (100% 담보)
- 담보대출액 최대 100% (100% 담보)
- ▶ 주택 - 논밭 - 땅 - 임대지 투기 대출

한국금융투자개발

☎ 374-2760